
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10월 25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 주거정비과	담당자	• 주거재생담당 • 담당자	성진호 ☎440-3486 정호기 ☎440-3488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유정복 시장, 붕괴 등 사고 대비해 빈집 안전관리 당부
- 중구 도원동 일대 안전사고 대비 빈집정비·관리 현황 확인 -

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0월 25일 중구 도원동 일대 빈집을 방문해 붕괴 등 사고를 대비한 빈집 정비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 대비에 적극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 등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.

인천에는 2023년 9월 기준 현재, 고시된 3,666호의 빈집이 있다.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매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다.

인천시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9월 기준 793호를 철거, 개량 또는 안전조치 했으며, 내년 말까지 빈집 현황을 재조사하고 효율적인 관

리를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빈집은 붕괴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되는 만큼, 원도심 빈집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빈집 정비와 관리에 적극 나서달라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7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<https://tv.incheon.go.kr>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